

3파전 압축 경선 판세...누구에게 유리할까?

새정치연합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3명씩 등록

광주, 이병완 불참
지지층 접친 후보 유리

전남, 김영록 의원 지역구
해남·완도 표심 향배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마감일인 2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병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김영록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선 판세에 변화가 예상된다.

경선 구도가 4파전에서 3파전으로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각 경선 후보 진영에서는 이들의 경선 불참이 미칠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후보들 간 유불리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경선이 박빙으로 진행될 경우 이들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컷-오프(예비경선)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이병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선 불참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민주당 출신의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 새정치연합 출신의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광동부위원장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전 이사장의

경선 불참이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보다는 윤장현 전 공동위원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이 전 이사장의 지지층과 접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의 측근이 이 전 이사장의 경선 불참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의원이 이 전 이사장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한술'밥을 먹었고, '친노'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이 그동안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한 점으로 미뤄볼 때 향후 경선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시장 본 선거는 전례없이 다자 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에,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당위원장,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당위원장, 노동당 이병환 노무사, 무소속 이 전 시장 등 최소 5파전 이상으로 본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김영록 의원의 경선 불참으로,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의 표심 향배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예초 전남지사 경선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대결 구도였다.



지방선거 모의투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 진행한 6·4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동부권 출신의 주승용 의원과 서부권 출신의 이낙연·김영록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의 대결 구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경선 불참은 서부권 표갈림 현상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 측은 김 의원의 경선 불참으로 인해 서부권의 표심이 더욱 결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 의원 측은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이 의원에 비해 조직력이 더욱 견고해 김 의원의 경선 불참은 향후 경선 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행보가 가장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끔찍한 공포와 죽음 앞에 선 인간 군상



(68) 노아의 방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착한 사람은 갈등이 초래하는 대결국면의 긴장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쁜 사람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구분해 본다.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아직까지 '정의는 있다'고 믿으며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을 지향하기에 마키아벨리의 이론은 불편하다. 인간의 선과 악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성서에서 창조주는 악이 널리 퍼지고 타락한 인간 세상을 벌하기 위해 홍수로 이 세상을 잠기게 한다. 가장 완전한 이상세계인 에덴동산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창조주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무사히 살아남은 뒤 인류의 조상이 된다.

인류 최초의 대재앙이라 할 성서 속 홍수가 영화 '노아'로 재현돼 '노아의 방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한다. 영화는 '노아의 방주'가 소재이지만 상당부분 성서와 달리 판타지로 펼쳐진다.

미켈란젤로(1475~1564)는 오



미켈란젤로 작 '대홍수'(부분)

래 전 상상 속 노아의 방주를 시스템나 예배당의 원형 천정화에서 '대홍수'(1508~09년) 장면으로 묘사했다. 거장은 노아의 방주만을 모티브로 삼지 않고 바위를 타고 오르거나 배로 기어오르고 피난처를 찾으며 재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여러 군상을 담아냈다. 끔찍한 공포와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인 모습을 치열하고 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회화, 조각, 건축에서 신과도 같은 능력을 지녔던 미켈란젤로는 데생에서 재능의 절정을 이뤘다. 천정화를 보면 "사람들이 하도 대상을 어려워하기에 신이 미켈란젤로를 보냈다"는 당대의 찬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놀라운 입체감을 표현해낸 능숙한 색채기법의 천정화에서 대화가 미켈란젤로의 면모를 만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전국 17개 시·도지사 37명 신청

새정치연합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는 강운태 시장, 윤장현 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용섭 의원 등이 신청했다. 또 전남에서는 이낙연·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공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17개 시·도지사 모두 3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린 서울시장은 박원순 현 시장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경기지사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김진표·

원혜영 의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모두 4명이 신청했다.

또 인천시장은 송영길 현 시장과 문병호 의원 등 2명이, 부산시장은 김영춘 전 의원과 이해성 전 조계공사 사장 등 2명이 신청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광역단체장은 예비후보 5명이 신청한 제주지사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공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시작한 뒤 4일부터는 면접심사를 하고, 이르면 오는 10일께 지역별 경선을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후보공모현황

지역	접수자 성명
서울	박원순
부산	김영춘, 이해성
대구	김부겸
인천	문병호, 송영길
광주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
대전	관선택, 선병렬, 송용호
울산	이상범
경기	김상곤, 김진표, 김창호, 원혜영
강원	최문순
충북	이시종
충남	안희정
전북	강봉균, 송하진, 유성열
전남	이낙연, 이석형, 주승용
경북	김병희, 오종기, 최영록
경남	김경수, 정영훈
제주	고희범, 김우남, 박진우, 신구범, 주종근
세종	이춘희

광역의원 공천 경선룰 주내 결정

새정치연합, 공론+여론조사·공론조사·여론조사 3가지 방식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중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 방식을 모두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합당을 함에 따라 양측 후보들이 모두 경선에서 맞붙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촉각이 모두 경선룰로 향하고 있다.

▷경선룰 3가지 논의=2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공론조사 50%+여론조사 50% ▲공론조사 100% ▲여론조사 100% 등 세 가지 광역의원 경선룰이 제시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광역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데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조사를 할 경우 배심원을 중앙당에서 결정한다는 점과 광역의원 선거구만을 놓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도 공론조사를 포함한 것은 지역 기반이 민주당 측 후보들에 비해 약한 새정치연합 측 후보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입지자 많아

전국서 가장 경쟁 치열

5대5 공천심사위 구성

'나눠먹기' 우려 목소리도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해 향후 어떤 경선룰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시당·도당 집행위 구성 및 공심위 구성=중앙당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중앙당 최고위원 성격인 집행위원회를 '5대 5원칙'에 따라 12명에서 24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지침을 내림에 따라 안철수 신당 측과 민주당 측 인사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 급주 내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공천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도 집행위원회처럼 안철수 신당 측과 민주당 측이 5대 5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일부 나눠먹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광주시의원 19개 선거구에 7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전국 최고 경쟁률(3.9대1)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남도 의원의 경우도 52개 선거구에 162명이 등록해 3.1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2일 "5대5 원칙이 이어지다 보면 공천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나눠먹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새 정치가 구태정치로 비치지 않도록 공정한 경선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민주당 당원은 23만명인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불과 1000명의 당원으로 합당했다"며 "민주당 조직이 강한 상황에서 5대5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광역의원 지역구 공천방식이 정해지고 다음주 공심위가 가동되면 경선방식에 따라 공천과 투병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나눠먹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지리산 야생녹차와 청학골 청정수의 절묘한 만남!

언제나 좋은 **벚** 진한 자연의 맛! 애환의 "삼학"이 만듭니다.

인도네시아 수출계약체결

한국 최고의 청정지역 지리산 청학골의 지하 200M 천연 맥반석 암반수로 빚고 국내 유일 녹차추출물 100% 함유로 뒤끝이 깨끗한 술!!

물다들술

직매장 운영주 및 대리점 모집

"삼학" 과 함께할 참신한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상담전화 02)865-3301~2